

'87年度 乳加工業의 回顧



韓國乳加工協會
常務理事 張 聲 鐘

언제나 한해를 보내고 지난날들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인간인 이상 당연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87년도 지나놓고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은 한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유가공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분유체화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특히 유가공업에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거의 모든 문제가 수급불균형에서 파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87년도를 돌아볼 때 대부분의 문제와 대책이 수급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87년도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수급문제를 중심으로 한해의 크고작은 일들을 돌아보는 것도 88년도에 도약을 위한 기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먼저 86년말에 5,500톤으로 출발한 분유(전지분유와 탈지분유의 합계)의 재고를 86년 12월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원유의 생산증가 때문에 87년 3월말에는 역사상 최고수준인 12,000톤 이상을 기록하였고 이 재고가 성수기인 4월부터 6월사이에도 2,500여톤밖에 줄어들지 않아 6월말 재고가 9,500여톤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자 유업계에서는 분유재고 체화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원유대의 지불을 늦추는 유대연불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났었고 또한 원유의 납유를 전년수준에서 10%증가만 인정하고 10%를 초과하는 원유는 납유를 억제하는 유업체도 나타났었고 신규낙농가의 원유 수유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원유대 지불대신 원유대의 일부를 분유로 지급하는 등 낙농유업체가 다같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원유의 검사와 계량을 유업체 자체검사원이 한다는데 대한 불신에서부터 파생하여 낙농가와 유업체의 상호불신으로 번졌고 상호 반목과 대립의 양상을 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었다.

또한 이러한 분유의 체화현상은 86년8월이후 모처럼 회복되고있든 분유의 가격이 또다시 원가이하로 내려가는 투매현상이 일어나 유업체의 자금압박을 더하여 경영수지의 악화를 초래하게되었다. 이를 계기로 과거의 원유수급상태를 살펴보면 62년도에 정부가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한 이후로 항상 생산이 수요를 뒤따라가지 못하므로써 매년 젓소를 도입하는등 생산기반 확충에만 전력하였으며 공급과잉 또는 소비감소때문에 문제가 되었던적은 몇번 없었고 그나마도 일년내에 그문제가 해결되었었다.

즉 70년 8월에 대장균과동때에는 서울지역의 판매량이 절반가까이 떨어졌었으나 2학기부터 서울지역에 학교급식을 실시하게 되므로써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두번째로 72년 1월의 비수기에 모 유업체의 수유거부사태로부터 야기된 수유과동때에는 정부와 유가공업계가 합동으로 소비확대 캠페인을 벌인 결과 당년에 문제가 해결되었었다.

세번째로 79년 하반기부터 석유과동으로인한 불경기에의한 분유체화때에는 학교급식의재개 공동홍보의실시 젓소도입중지 원유대지불자금의용자, 수입유제품의 억제등의 다각적인 대책에의하여 그 다음해에 분유재고가 모두소진되었고 도리혀 부족하여 82년도부터는 우유수급조절용으로 분유를 수입하기까지 하였었다. 그러나 84년 하반기에 불경기와 더불어 일어난 공급과잉현상은 '85, '86년을 거쳐 87년까지 해소되지 못하였고 그동안 이러한 수급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보조하에 재고분유의 수출(전지분유 2,030톤)정부보조하에 재고분유의 송아지대용유용으로 2,297톤공급(유업체보유분 1,393톤, 정부보유분 904톤). 시유의 소포장용량증량 (180ml에서 200ml로). 원유대지불자금의 용자. 84년이후 매년 공동홍보의실시. 학교급식의확대. 아이스크림 특별소비세면제(86년7월부터). 유제품의 수입억제(유당의 수입한도량 축소, 카제인의 수입 감시품목화, 유청분말 및 탈지분유의 수입억제)등의 소비확대와 재고체화 해소방안을 실시하는 동시

에 생산억제 방안으로는 송아지에 모유먹이기운동, 저능력우 도태운동등 모든방안을 동원해 보았으나 이와같이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것은 소비에만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높은 생산증가율에 있는것이 아니냐하는 우려를 낳게하였다.

과거에 수급불균형시 취한 대책을살펴보면 원유의 생산량이 적을때에는 한두가지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원유의 생산량이 많아짐에따라 한두가지의 대책 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수있다. 특히 원유의 생산량이 백만톤이 넘어선 85년이후는 근본적인 수급조절을 전담할수있는 기구가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 이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든 시기는 지났다는것을 암시해주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는 서울우유 협동조합을 비롯한 몇몇학자들에 의하여 예견된 바 있으며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원유의 생산조절을 실시 하도록하는 법안을 행정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행정예고는 이미 봄부터 추진중이든 원료치즈 수입을 전제로한 치즈합작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과 상승작용을 하여 낙농가들의 전면거부에 부딪치게 되었고 급기야 87년8월14일부로 전면 백지화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현상은 비록 생산조절제가 백지화되었다 하더라도 낙농가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생산의욕을 감소시켜 저능력우의 도태를 유도하였을 뿐만아니라 87년 여름의 폭우는 조사료 생육에 지장을주어 원유의생산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특히 젓소의 도태두수를보면 6월까지의 월평균 도태는 4,600두에 불과하든것이 7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은 6,400두로 대폭늘어난것이 생산증가율을 감소시키는데 큰영향을 끼쳤을것이며 이로인해 유가공협회의 20개사통계에의하면 원유증가율이 7월까지는 21%증가하였으나 8월이후는 18%내외로 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소비측면에서는 7~8월에 우유공동홍보와 9월말경의 전국 우유무료 시음대회. 2학기부터 정부보조하에 중고등학교 우유급식 9월이후에 축협을통

한 정부의 우유홍보 및 광고등에 힘입어 8월까지의 소비증가율은 10~20%로서 평균 16%수준이든 것이 9~10월에는 25%수준으로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생산의 감소와 소비의 증가는 성수기와 겹쳐 9월부터는 원유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학교급식에 있어서 특기할만한것은 87년도의 학교급식예산을 정부는 두번에 걸쳐 대폭 확대수정 하였다라는 것이다. 즉 당초 정부에서는 국민학생 2,921천명을 대상으로 37억8천만원의 보조금을 계상하였다가 3월에는 3,838천명에 46억9천만원으로 증가시켰고 9월부터는 이외에 중고등학생 2,136천명을 대상으로 9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계상하여 도합 5,974천명에 56억1천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책정한것을 들수있다. 이에따라 8월말에 9,100톤에 이르던 분유재고가 9월말에는 6,800톤 10월말에는 5,600톤 11월말에는 4,000톤으로 떨어지는등 급격한 재고소진을 가져오게되어 모처럼 88년도는 원유수급에 안정을 기하거나 또는 원유가 부족될 전망이라는 희망을 갖게되었다. 이외에도 버터는 9월이후에 특별히 부족현상이 극심했든바 이는 그동안 버터의 생산구조가 탈지분유 생산시의 부산물로 만들어지거나 탈지분유와 더불어 생산되는 연산품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있어 탈지분유의 재고가 누적되면 버터생산에 제약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9~10월의 탈지분유 재고는 2천톤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9월이후의 원유부족 현상은 버터생산에 커다란 제약요인이되어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등의 식품업체가 큰 곤란을 겪었다. 이 재고 부족현상은 앞으로도 탈지분유의 소비가 확대되지 않는한 88년도에도 해소될 전망이 희박한 상태에 있다. 또한 87년도에 특기할만한일은 치즈의 판매

가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한것을 들수있다.

그동안 치즈의 소비량은 매년40~60%의 높은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그소비량이 워낙 적어서 원유수급에는 전혀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었지만 이제 87년도에는치즈 소비가 1,500여톤에 이르게 되므로 앞으로는 우유수급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는것과 다음으로는 호상요구르트 시장에 해태유업이 11월부터 뛰어들었고 한국야쿠르트도 88년 4월을 목표로 모든준비를 진행중에 있다는것은 액상요구르트시장이 호상요구르트시장으로 전환되 나갈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는데 뜻이있다.

끝으로 87년 일년내내 낙농업체에서 거론되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우유의 수급문제로서 안정적인 우유의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수급조절기구가 만들어져야겠다는 것이었으며 방법론에 있어서는 축협에서 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지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업무기능에 있어서는 동기구에서 집유일원화, 검사공영화, 유질별 유가 제도 실시. 수출입창구의 일원화 분유의 수매 비축방출업무등을 실시해야 한다는데는 별로 의견에 차이가 없으며 그이외에 동기구를 통해 생산조절제의 실시도 검토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농민 스스로 우유소비확대 공동홍보에 참여하는 소위 자조금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구체화되었으나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이와같이 87년도에는 그동안 수급상의 모든문제가 겹으로 나타나고 그에따른 대책도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므로 이미 표출된 문제점과 해결책을 가지고 시행해 나가는 결단만이 요구되는바 88년도에는 우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기구의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88로 꽃피우고

통일로 열매 맺자